

# 먹방, 허기진 영혼을 채우는 푸드 포르노(上)

전문가 칼럼 - 복고열풍

최태섭

문화·불평'가



이제는 먹방이 대세라고 말하는 것도 새삼스러운 일이다. TV를 틀건, 온라인에 접속하건 어디나나 먹방이 있다. 방송의 정체성 자체가 아예 먹방인 프로그램도 이미 여럿이고, 드라마, 예능, 교양 할 것 없이 먹방이 등장한다. 연예인들의 '화제의 먹방'이 앞 다투어 보도되고, 어떤 이들은 음식 한 번 잘 먹은 데에 일약 스타로 등극하기도 했다.

따지고 보면 사실 연예인들의 먹방은 뒷북이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개인 채널로 먹방을 중계하고 그것으로 수익까지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방송에서 하는 일은 음식을 먹으며 채팅창에 올라오는 댓글에 때때로 대거리를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송을 보면서 '별풍선'(개인 방송 사이트 '아프리카TV'의 사이버 화폐)을 쌓았다. 굳이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이들의 SNS에는 자신이 먹은 음식들을 자랑하는 사진이 반드시 있다. 검색엔진과 블로그가 각종 광고와 프로모션들로 훈탁해진 틀을 타서, SNS친구들이 제공하는 진짜 맛집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삶의 소소한 지혜가 된지도 이미 오래다.

## 범람하는 '먹방' 열풍

### 타인의 식사에 열광하는 사람들

이렇게 먹방은 음식을 먹는다는 지극히 원초적이고 개인적인 행위를, 수많은 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지는 모종의 의해 같은 것으로 탈바꿈 시켰다. 맥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 옛말이 무색하게도, 이제 사람들은 타인의 식사에 열광할 준비가 되어있다.

물론 과거에도 음식이 방송이나 미디어의 소재로 사용되는 일은 흔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한국을 휩쓴 웨딩 바람은 '잘 먹고 잘 살기'라는



슬로건으로 죽어버렸고, 덕분에 방송과 매체들은 일상 봄에도 좋고 맛도 좋다는 음식을 찾아내느라 혈안이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일은 드물었다.

이 새로운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는 <고독한 미식가>를 꼽을 수 있겠다. 일본의 TV도쿄에서 2012년 심야 시간에 방영되기 시작한 이 드라마는 현재 시즌 5의 방영을 앞두고 있다. 사실 일본이야말로 이미 오래전부터 온갖 먹방의 천국이었다.

그런데 <고독한 미식가>는 그 장르 안에서도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 '드라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등장인물은 주인공 하나뿐이고, 스토리도 '수입상으로 일하는 40대 독신남 성이 일 때문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지면 식당을 찾아서 원하는 음식을 먹는다'가 전부다. 물론 매 회마다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애피소드도 있지만, 이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타인'은 그가 방문하는 가게의 종업원이나 주인을 제외하면 자신만의 식사를 즐기는데 방해가 되는 곤란한 존재들 일 따름이다. 즉, 드라마라는 이름을 붙인 이 영상물에서는 이야기를 만들어 낼만한 모든 것들이 거의 방해꾼의 역할로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다. 심지어 주인공의 대사도 그가 음식을 먹으면서 내뱉는 독백이 거의 대부분이다. 결국 4시즌이 다 가도록 주인공은 그 누구와도 견상을 하지 않고 혼자서 밥을 먹었고, 카메라는 그 '먹부림'을 세세하게 카메라에 담아 매 회마다 10~20분가량을 오로지 먹는 장면으로만 채웠다. 이쯤 되면 이것을 '포르노'의 일종이라고 부르지 않을 도리가 없어 보인다. 자극하는 대상이 성욕이 아니라 식욕이고, 그래서 심의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만 빼면 말이다.

### 식욕을 자극하는 푸드포르노 문화적 허기를 위로하다

나 역시 이런저런 먹방의 나름 열렬한 시청자이지만,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면 제법 심정이 복잡하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나이 없다는 사실이다.

계속된 불황과 그에 따른 가계 및 노동소득의 저하는 필연적으로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소비에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품목은 이른바 '문화생활'에 대한 지출이다. 자꾸만 하한선을 돌파하는 통장잔고를 보면 영혼에 스치는 불안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밖으로 나가 취미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화생활은 끊어도 밥을 끊을 수는 없는 일 아니, 우리는 매우 경제적인 셈을 거쳐 음식으로 두 개의 허기를 모두 해결해 보려는 다소 가련한 노력에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밥 한 끼를 위해 겹색을 하고, 줄을 서고, 정성스레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다. 소문난 맛집 앞에 늘어서 있는 줄은 맛있는 것을 먹고자 맡겠다는 1차원적인 의지일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소문의 일부가 됨으로써 얻는 미약한 '문화적' 위안에 대한 의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먹방은 이 위축된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가져본 적 없는 풍요에 대한 알레고리처럼 복스럽게 음식을 먹어치우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말초적인 자극과 묘한 위안을 건넨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소울푸드'는 어찌면 음식 그 자체라기보다는 양산되는 수많은 먹방과 먹쩔들일지도 모른다. '나 잘 먹고 살고 있다'라는 허세와 생존신고가 절반씩 섞인 음식의 이미지를 말이다. '먹기 위해 산다'와 '살기 위해 먹는다'는 두 명제가 이 이미지를 속에서 기묘하게 뒤섞인다. 어찌면 먹방은 밥 한 끼도 편안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게 된 우리들을 위한 식욕증진제 같은 것이 아닐까.

### ▶1면에서 이어짐



인류가 도달한 최고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문명을 단수형으로만 사용하였다. 문명의 복수형이 나타나는 것은 19세기 초 나폴레옹의 패배와 비인체제 이후 여러 열강들이 유럽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난립하면서부터이다. 그렇지만 복수의 다양한 문명들이 모두 동등한 가치로 평가되었던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월한 문명은 근대유럽문명이라는 서구중심주의가 이때 등장하였다.

프랑수아 기조는 『유럽문명사』(1828)에서 근대유럽문명이 왜 특별한지를 이야기한다. 그는 유럽문명이 오랜 역사를 통해 인간의 진보와 자유의 원리를 발전시켰고 그 결과 근대에 이르러서는 인류사회가 지향해 야할 궁극적인 미래를 제시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대유럽문명은 단순한 개별문명의 차원을 넘어서 인류의 보편문명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기조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19세기 후반 유럽

인들의 '문명화 사명'으로 이어졌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미개인들'은 스스로 문명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럽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문명화 사명은 유럽의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고 서구의 가치를 세계에 강요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었다.

유럽의 서구중심주의적 문명관은 제국주의를 통해 비유럽지역에도 전파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지식인들이 civilization을 중국 고전에서 베낀 文明이라는 한자어로 번역하여 한국과 중국에 확산시켰다. 이들은 번역어뿐만 아니라 문명과 야만의 이어진다.

### 참여마당

지영주

정치외교학 2014



## '여행', 진지하게 고민하자

대학생들 사이에서 일정기간 동안 기차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내일로'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성년이 돼 우리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느낄 수 있는 '해방감'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다. 몇 번의 방학동안 내일로를 통해 여행을 다녔고 이번 여름방학에는 전공연수를 겸한 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의 가치와 그것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봤다.

먼저 먹을 것에 관한 부분이다. 해외여행을 떠나면 필수적으로 흔히 음식과 물갈이의 문제에 당면하곤 한다. 물갈이는 반드시 그곳의 물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음식의 경우에는 선택지가 있다. 라면이나 소고기 고추장 같은 한국에서 가져간 음식들을 먹을 수도 있고, 로컬음식을 먹는 것을 도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잘 먹어야 잘 돌아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나중에는 로컬음식을 많이 먹기보다는 나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었던 것 같아 조금은 아쉽다. 그 곳의 음식을 먹는 것이 그 나라의 생활상과 밀접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음식 문제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루에 3번씩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느껴졌다.

### 여행을 하며 먹는 음식, 보내는 시간, 즐기는 방식

#### 진지한 고민을 통해 더 즐길 수 있다

또한 이번 여행에서 느낀 것 중에 큰 부분은 여행이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여행을 다니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동시간'이다. '이동시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리듬과는 벗어난 불규칙적인 시간이 생긴다. 때로는 몇몇 사람들은 긴 '이동시간' 지루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항상 지나다니는 학교 가는 길, 집으로 돌아다니는 길은 너무 익숙해져서 무감각하게 지나가지만 여행가서 만나는 낯선 풍경들은 지나온 과거를 곰곰이 생각하게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다.

마지막으로 여행의 방식에 대한 생각이다. 주변 사람들의 여행 방식과 그 결과를 볼 때 아쉬운 점이 더러 있었다. 여행이 '휴식'과 '여유'를 오롯이 즐기기보다는 그저 그곳에 다녀왔다는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유명한 장소에 가서 그 건물과 유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진지하게 그 장소에 대해 생각해보고 즐기려는 여유가 없는 것 같다. 입장료가 비싸다고 유적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봤다. 여행의 가치는 주관적일지라도 사진으로 나의 여행을 '인증'만 하는 사람들의 여행을 보면 아쉬운 마음도 든다.

방학은 끝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음 방학에도 그리고 주말에도 여행을 떠날 것이다. 자신이 동경했던 장소, 휴식을 위한 휴양지로의 여행 등 다양한 여행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번 여행에서 느낀 점을 통해 조언을 해주고 싶다. 여행을 가기 전에 로컬음식은 어떻게 먹을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행에서 이동시간을 지루해하지 말고 사색할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즐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행가서 만나는 수많은 장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펴봤으면 좋겠다.

### 2015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및 실적등록 안내

2015학년도 2학기 자유선택과목 '사회봉사 123'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취득 가능 학점

가. 성적부여 방식: P / F (2014학년도부터 P/F 모두 성적표에 기재)

나. 최대 취득 가능 학점: 학기당 1학점, 총 2학점 (단, 200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최대 3학점)

#### 2. 사회봉사 학점취득 변경내용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항목	2012학기 이전	2013-학기부터
취득요건	온라인캠퍼스 이수 후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제휴학과에 관계없이 입학 이후 실시한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 3. 사회봉사 학점인정신청 및 실적등록신청

구분	교과목 이수 (학점인정신청)	실적등록
대상	2015-2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학생	전체 재학생 및 휴학생
서류 제출기간	2015년 11월 29일(금) ~ 2015년 11월 27일(금) 17:00까지 ※ 기간을 제외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① 사회봉사, 교내봉사 및 단과대학에서 주관하는 봉사단, 취업진로지원처와 사전 협의하여 합의를 실시한 경우 ② 한일, 입학 후 실시한 본인의 한 학년에서 원본을 기증한 경우 ※ 한일, 입학 후 실시한 본인의 한 학년에서 원본을 기증한 경우 ※ 한일, 입학 후 실시한 본인의 한 학년에서 원본을 기증한 경우	
제출서류	1. 학점인정신청서 2. 봉사활동학점증명서 원본 및 사본 3. 소감문	1. 실적등록 신청서 2. 봉사활동학점증명서 원본 및 사본 3. 소감문
제출서류양식	제출서류양식은 <a href="http://service.khu.ac.kr/">http://service.khu.ac.kr/</a> 접속 후 정보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4. 기타 세부사항

가. 봉사시간은 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된다. 같은 날 실시한 한 학년 봉사시간은 학점 인정 대상

나. 한 학년에서 기증한 학년 봉사시간은 학점 인정 대상

3. 학점인정신청기간은 2015. 11. 29. ~ 2015. 11. 27. 17:00까지

4. 학점인정신청기간은 2015. 11. 29. ~ 2015. 11. 27. 17:00까지

5. 학점인정신청기간은 2015. 11. 29. ~ 2015. 11. 27. 17:00까지

6. 학점인정신청기간은 2015. 11. 29. ~ 2015. 11. 27. 17:00까지

7. 학점인정신청기간은 2015. 11. 29. ~ 2015. 11. 27. 17:00까지

8. 학점인정신청기간은 2015. 11. 29. ~ 2015. 11. 27. 17:00까지

9. 학점인정신청기간은 2015. 11. 29. ~ 2015. 11. 27. 17:00까지

10. 학점인정신청기간은 2015. 11. 29. ~ 2015. 11. 27. 17:00까지

11. 학점인정신청기간은 2015. 11. 29. ~ 2015. 11. 27. 17:00까지

12. 학점인정신청기간은 2015. 11. 29. ~ 2015. 11. 27. 17:00까지

13. 학점인정신청기간은 2015. 11. 29. ~ 2015. 11. 27. 17:00까지

14. 학점인정신청기간은 2015. 11. 29. ~ 2015. 11. 27. 17:00까지

15. 학점인정신청기간은 2015. 11. 29. ~ 2015. 11. 27. 17:00까지

16. 학점인정신청기간은 2015. 11. 29. ~ 2015. 11. 27. 17:00까지

17. 학점인정신청기간은 2015. 11. 29. ~ 2015. 11. 27. 17:00까지

18. 학점인정신청기간은 2015. 11. 29. ~ 2015. 11. 27. 17:00까지

19. 학점인정신청기간은